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2000년 서리집사 · 교구일꾼 임명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표어로 삼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1999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각종 연말연시 행사로 분주하기 쉬운 12월 교회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해를 알차게 맞이하기 위한 일들로 바빠진다.

오늘부터 내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 임명, 각 교회학교와 전도회 등의 총회 및 사업계획을 위한 회의 및 기도회, 시상식 및 수료식 등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 731명 내년 봉사 맡아

오늘 I · II · III부 예배 시에는 2000년도에 봉사할 서리집사를 임명한다.

내년에 봉사할 서리집사는 남자 312명, 여자 419명 등 모두 731명이다.

이중 처음으로 임명받는 서리집사는 남자 22명, 여자 35명 등 54명이며 이들은 당회의 추천

을 받아 지난 달 교육과 면담을 거쳐 오늘 임명을 받게 됐다.

### 12개 교구장 등 일꾼 임명

또한 집사 임명식에 이어 12개 교구의 교구장, 95명의 지역장과 35명의 부지역장, 249명의 남·여 다락방장 그리고 12명의 교구간사, 145명의 권찰 등 2000년도 교구일꾼 임명식도 갖는다.(관련기사 4면)

### 교구 총회 후 교구별 속회

교구총회가 오늘 III부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 모이는 교구총회에서는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남·여다락방장, 권찰, 간사 등 내년에 수고할 교구일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구총회가 끝난 후 이어 교구별 속회가 열린다. 속회에서 교구일꾼들은 인사를 나누고

담당 교역자와 안전 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교구별 속회 모임 장소는 1·2교구는 3층 소망부실, 3·4·9·10·11·12교구는 1층 예배실, 5·6·7·8교구는 2층 예배실이다.

## 12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5일	서리집사 · 교구일꾼 임명식 교구총회 사명자대회 승전감사예배
12일, 15일	찬양대원 임명식
19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성탄축하 찬양예배
22일	12월 학습 · 세례식
24일	청탄전야행사
25일	성탄절 예배
26일	교회학교 졸업식
27, 28일	교역자세미나
31일 ~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 스데반회 총회

우리 교회 안수집사 모임인 스데반회에서 10일(금) 오후 7시 총회를 갖는다.

### 건축 위한 비상 기도회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 공사가 시공사 재정난으로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자 새벽마다 비상기도회를 열고 있다.

은 교회가 하나되어 기도하는 비상기도회의 요일별 주력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요일	주력기관
월	당회원, 스데반회, 제1·2권사회, 무지개회
화	당회원, 스데반회, 제2권사회, 남전교회
수	당회원, 스데반회, 제1권사회, 여전교회
목	당회원, 스데반회, 제2권사회, 교회학교 교사
금	당회원, 스데반회, 제1권사회, 찬양대원
토	당회원, 스데반회, 제2권사회, 교구일꾼

### 최지혜 전도사 부임



최지혜 전도사가 교육부 지도 전도사로 부임한다.

최 전도사는 서울여대와 장신 신대원을 졸업했다. 영락교회 유아부를 지도한 경력을 가진 최 전도사는 정윤돈 목사 부인이기도 하다.

### 정대일 · 정홍재 전도사 사임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는 정홍재 · 정대일 두 분 교육전도사는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전임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어 12월 첫째 주일자로 사임한다.

### 12월 학습 · 세례식

우리 12월 학습 · 세례식이 22일(수) I ·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2

일(주일),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9일(주일) II부 예배 후 403호실에서 각각 실시되며 이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는 20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답은 21일(화) 오후 7시 403호에서 한다. 문의는 새가족부.

### 2000년 순결서약식 1월 2일 거행 12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교회는 내년 1월 2일 찬양예배 시 거행될 순결서약식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19일(주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신청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사야 강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이사야 30장 18 - 2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모두 멸망시키시는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 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화를 선고한 후 구원을 약속함으로 범죄한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도 화급히 구원하여 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신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심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요 11장).

1.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가

(1)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에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값으로 당하여야 할 고난을 당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18절).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2)공화를 베푸시려고 때를 기다리신다

범죄한 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화입니다.

(3)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데(19절)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행복하지 않으므로 환난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4)소망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18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인내를 갖게 됩니다.

2.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

(1)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받게 됩니다(19절).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 일어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화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종운 목사



가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을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화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사 55:6 - 7).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영적으로 풍성해진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20절)이란 적군의 포위 속에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식량으로 가난한 자의 초라한 음식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스승처럼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며 감찰하시고 교훈하시며 전능하신 팔로 인도하십니다(20절).

"고난 당하나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물질의 복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서 더 큰 복입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보라 날이 이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

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지 못하리니"(암 8:11 - 12).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비틀거리고 영혼이 비틀거리면 육신도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날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회개하면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

움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도울 분이 계신 줄을 알게 되므로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죄를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우상을 버립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제 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수난을 보시고도 속히 개입치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는 회개한 때에 더욱 가깝게 나타납니다.

환난과 고생은 떡과 물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고집과 변덕이 심한 인생이므로 환난과 고생이 없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생은 겸손과 인내와 경건한 두려움과 신뢰를 낳게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는 맺느니라"(히 12:11).

환난과 꾀박 중에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임직을 받고서 ●

# 마지막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임훈규(장로, 8교구)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아, 섬기기에 열심을 다한 종아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로도 음악으로도 그 어떤 예술의 형태로도 그 벅찬 감격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한 일꾼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되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우를 사랑하며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같이 큰 일을 부탁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지요. 또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이운데 감당할 만한 힘과 건강까지도 주시리라 믿고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께선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호와의 찬양하며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모든 이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충성되고 섬기기를 잘한 종아 천국이 네 것이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습니다.

# 남편이 섬기던 그 모습처럼

박윤혜(권사, 7교구)

사랑하는 남편(故 나희주 장로)을 보낸 지 어언 7개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던 제게 이제는 적용되어 가는 것이 슬프고 또 슬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권사의 반열에 들게 되었지만, 제가 무엇을, 제 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아무 것에도 자신이 없어진 제게 또 하나의 크고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것이라 생각은 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그 시간과 남은 열정을 하나님 영광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간 그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남편이 남겨놓은 일들을 주님의 일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밟던 운동장, 숨쉬던 교무실에서 오늘도 근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이때, 21세기를 책임지고 나아가 갈 이나라 기둥들, 주님의 천국의 일꾼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며 날마다 수업 들어가 기 전, 시간 시간 기도하고 수업에 임합니다.

너무도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했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위엿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할 때 감사하지 못한 죄,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죄가 새록새록 가슴을 후벼팝니다. 주 안에서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더 충성하지 못한 죄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감사를 찾는 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해봅니다.

소외된 곳에서 외롭게 눈물 흘리는 이들을 찾아 함께 울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체,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시들어 없어지기 전에 마음껏 주의 일하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러나 주님! 이 죄인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용기와 위로 주시며 주의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맛보며, 그 사랑을 전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 결단의 머리를 땅아 올리고

한춘홍(권사, 8교구)

가는 해를 보내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아쉬움과 감격을 이제 한 달 남겨 놓고 우리의 믿음과 각오로 하늘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쁨의 잔치는 열려졌습니다. 교회의 여덟번째 맞는 역사적인 창립 주일, 대명절인 추수감사절.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합쳐진 잔치의 마당이었습니다.

임직받는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얗게 옷을 갈아입고 결단의 머리를 단단히 땅아 올리고 속사람을 태워버리듯 헌신의 불꽃을 들고 걸어 들어오는 예비 임직자들의 장엄한 행렬은 하늘 문을 여는 엄숙한 기도의 향연이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집사! 과연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의 부끄러운 교리의 물음을 끝마치지도 않은 채 감히 권사라는 직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되뇌이면서도 어서라고 낮선 다짐일뿐...

혹여 자리만, 이름만 차지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권사가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끝없이 공급하시는 사랑 안에서 모든 이웃의 친구가 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충성하는 종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몸에 짚어지고 나날이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며 봉사하는 성도 중의 성도요 신자 중의 신자의 성화된 인격을 또한 그의 따른 삶을 살기를 부단히 기도드립니다.

순결한 여인의 정결로써 신랑을 기다리듯이 교회를 위해 끝없이 불을 밝히는 작은 종으로서 어질고 또 아프게 끊임없이 비워내며 끊임없이 채우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길을 향해 무릎으로 갈 것을 결심해 봅니다.

때가 아직 낮아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라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요9:4)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 힘써 주의 일에 겸손히 앞장 서는 권사로 살아가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99 사명자대회 승전보고서

- 운동본부 -

'99 사명자대회가 10월 10일에 11월 28일까지 50일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양 찾기 등 전도운동을 전개했으며 태신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다.

그간 우리 교회 설립의 사명을 받고 성도들이 모여 50일 간 기도한 후 교회를 설립한 것을 기념하면서 교회설립일을 즈음하여 매년 50일간 벌이던 비전2020운동이 올해부터는 사명자대회로 개칭되었다. 올해의 사명자대회에는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의 표어를 외치며 7가지 공동 기도제목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참여했다.

'99 사명자대회 기간 중 이어진 50일 연속기도회에 연인원 2,038명이 참가했다. 이 통계는 권사기도회나 금요기도회를 제외한 수치로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짐작케 한다. 연속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이번 사명자대회 기간 중 신구약 성경을 9번 통독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11월 15일(월)부터 27일

(토)까지 2주간은 새벽 5시부터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여 이종윤 목사가 시편 119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회중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 특별새벽기도회에는 연 2,618명이 참여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

## 탈북민을 위한 U형원 서명운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제안으로 1999년 4월 16일 북한 난민보호 U형원운동본부가 발족된 이래 탈북난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촌을 설치하여 강제 송환의 위기에서 구출하자는 국내외의 뜨거운 호응으로 서명 2백만 명을 달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예배와 서명자 공로 표창이 11월 30일 오후 5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1부 감사예배는 추진위원장 이종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2부 기념식에서는 운동본부장 김상철 장로의 경과보고 및 공로자 표창이 있었다. 공로자 표창 순서에서 만부장 19명 중 서울교회 성도가 12명이었고 오전부장과 삼천부장도 각각 3명씩 서울교회 성도가 기념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30만 명을 초과하여 금년 내로 4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이날 운동본부는 12월 5일을 '탈북난민을 위한 한국 교회 1200만 성도 합심 기도의 날'로 선포했고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사절단의 체비바 유엔고등판무관실 방문을 위해 기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중국으로 탈북한 후 몽골을 경유해 난민지위를 획득한 13명의 난민이 이날 입국하여 기념식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참석하는 못했다. 그러나 서명운동 전개 이래 가장 많은 탈북 난민이 입국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뜨겁게 이어졌다.

###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2일(화) 연목회 대표회장에 재선됐다. 7일(화)엔 비전2020후원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설교한다.
- \* 박종상 선교사와 가족이 4일(토) 귀국했다. 박 선교사는 현지 사정으로 비자 연장이 어려워 만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철수한 것이다.
- \* 고경선 목사·이은희 사모가정은 11월 30일(화) 득녀했다.
- \* 신창용·이혜영 성도(4교구) 가정은 3일(금) 득녀했다.
- \* 무지개회(회장 이인선 권사)는 지난 주간 서초구에 거주하는 8명의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김치 60포기와 쇠고기를 20근을 전달했다.
- \* 박두호 장로 가정에서는 우비 10벌을, 에스더 12지회에서는 강화 10결례를 각각 식당에 기증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최순애 권사가 정에서 제공했다.
- \* 신임권사는 6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헌장방문을 한다.

### ■ 이사 ■

- \* 윤찬오 장로·홍채식 권사, 강동구 성내동 유원빌라로(☎ 482-9191).

## 김장합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12월 8일(수), 9일(목) 양일간 김장을 한다. 많은 봉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성서강해  
기독교방송(HLKY 98.1MHz)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생명은 빛으로  
극동방송(HLKX 1188KHz)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2000년도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김영준 장로    지도 정운돈 목사    서기 서문석 장로    회계 윤찬오 장로

교구	지도	교구장	간사	다락방
1	이성득	오정수, 이용선	주경자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	이성득	정병무, 하영수	최일춘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성보아파트
3	정운돈	김상철	정동호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자곡, 양재
4	정운돈	김태기, 임훈규, 전기섭	박미혜	반포, 잠원, 서초, 방배
5	고경선	민순구	박영옥	과천, 안양, 의왕, 평촌, 사당, 봉천, 상도, 신림, 군포, 수원
6	고경선	노송성	김정란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광명, 부천, 인천, 목동, 안산, 시화
7	고경선	이영기, 김영준, 박두호	최정희	용산, 중구, 종로, 마포, 서대문, 일산, 고양, 은평
8	고경선	서문석	제오복	삼선, 안암, 마야, 수유, 우이, 쌍문, 월계, 상계
9	이규정	윤봉준	최영란	중곡, 구의, 자양, 성수, 홍파, 금호, 옥수, 중랑, 남양주,
10	이규정	최종시, 성준경, 윤찬오, 이완형	한명순	둔촌, 길동, 명일, 성내, 광주, 양명, 이천, 청주, 샌프란시스코
11	이규정	박철환, 노문환, 홍정호, 왕경래, 임광식	김혜영	신풍, 잠실, 송파, 휘밀리, 가락, 문정, 오금
12	이규정	김광신, 이병생, 이남호	나기태	성남, 분당, 수지, 신갈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임명받는 2000년도 일꾼들을 위해
2. 연말연시 교회 행사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약도

